

정읍시 ‘폭탄 전화’로 불법 광고 잡았다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 효과 톡톡
명함·전단·현수막 등 75% 감소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일명 ‘폭탄 전화’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폭탄 전화’ 도입 이후 불법 광고물이 75%가량 줄어든 것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폭탄 전화’라고 불리는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명함·전단·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 불법 광고물을 75%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해성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5만2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하반기에는 1만3143건으로 75%가량 줄었다.

대상 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때를 대비해 자동전화안내에 쓰이는 발신 번호는 매년 변경하고,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팔 걷었다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확보와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유치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 타당성과 중앙부처 정책자료 제출, 사전 연구기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과 정치권의 연계를 통한 중앙정부 공략 전략을 공유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익산시의회와 함께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하반기에는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익산지역은 원광대병원과 함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풍부한 의료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익산시는 이를 활용한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 세계 인구의 4%(약 3억 명)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



익산시는 지난 12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는 점에 착안, 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다.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신설 최적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관계 기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 기관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 추천하세요” 개인·단체 내달 9일까지 신청

정읍시는 제54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1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문

화 사업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접수는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추천자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

된다. 시상식은 제54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열리는 5월 8일 열린다.

2011년 첫 수상자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도을 김용옥 선생이 대상을 받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복분자 발효식초, 노화 방지 탁월

일반식초보다 항산화물질 3배 ... 건강식품·화장품 등 활용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 결과

고창군의 복분자 발효식초(사진)가 일반 식초보다 항산화 물질이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따르면 고창 복분자 식초와 시판 식초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고창 복분자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폴리페놀 성분 3배 이상, 플라보노이드 성분 1.6배 가량이 높게 함유됐다.

폴리페놀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C와 비타민E보다 3~5배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고창군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 식초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식초산업팀 관계자는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진 식초문화도시를 만



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원광대 사상 최악 신입생 미달...“총장 사퇴하라”

교수협·직원노조 이어 총학도 요구

사상 최악의 신입생 미달 사태로 원광대 박맹수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총학생회도 독선적 학교 운영과 무능을 지적하며 박 총장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광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학생회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모든 것이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은 “코로나19로 학생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역이라는 기본은 방지됐고 대안 없는 통보는 일상이 됐다”며 “신입생 총원 미달과 인사·소통 불능, 협약 미이행 등 정장에서 한참 벗어난 지금의 원광대는 고이고 썩었다”고 질타했다.

또 “총장과 학교는 국책 사업에 줄줄이 탈락하고 독선적 행정을 자행하면서도 대학의 미래와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떨어질 대로 떨

어진 원광대 위상과 이러한 상황에 맞이하는 평가를 앞두고 대학을 후벼파 한다는 게 슬프고 슬프다”고 한탄했다.

총학은 “무능한 총장의 집권과 행정, 인사의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며 “지금 아프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광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추세대로면 앞으로 10년 안에 원광대라는 교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총장은 무엇이 대학을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구성원 모두와 학교에 해가 되는 일을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박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원광대는 올해 신입생 정원 3543명 중 2833명을 모집해 충원율이 79.9%에 그쳤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학관리 담당자가 물러나는 등 사상 최악의 신입생 미달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제1회 고창 신재효 문학상’ 공모...상금 5000만원

10월 17일까지...창작 장편소설 대상

고창군이 오는 10월까지 ‘제1회 고창 신재효 문학상’ 수상작을 공모한다.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의 소재와 배경으로 한 창작 장편소설이 공모 대상이다.

당선작에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당하는 5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접수 기간은 10월16일까지로 당선작은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시상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당선작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도 제작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